

국제경쟁력을 위한 대학교육

문 용 린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 대학교육의 이상

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 고등교육 체제이다. 즉, 전 세계의 모든 대학은 거의 동일한 조직체제와 이념 및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로부터 거의 유사한 역할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한 동일성과 유사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훔볼트(Humbolt)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역사가 800년을 경과하는 과정에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곤 했다. Wilhelm V. Humbolt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가장 명료한 정체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른바 훔볼트주의로 알려지고 있는 그의 대학관은 아주 간단명료하다.

그에 의하면, '대학은 도그마의 형성과 전수의 장소가 아니고, 교수와 학생이 동반자의 위치에서 개방된 자세로 함께 지식을 형성하고 학습하는 곳'이다. 대학은 연구(Research), 교육(Teaching) 그리고 학습(Study)의 세 활동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는 곳(Nexus)이라고 그는 말한다. 교수는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며, 학생들은 교수가 제시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학습자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이자 탐구자이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은 '연구-교

육-학습'이라는 세 연계 활동의 두 동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훔볼트주의는 1800년대 후반 독일에서 시작되었으나, 정작 이 이념이 크게 꽃 피우게 된 것은 1950년대 이후 미국 대학에서부터였다.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그리고 시카고 대학은 훔볼트주의의 실현을 위한 대학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업적과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가장 발전된 모습과 수준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 대학들의 주도 이념이 바로 훔볼트주의라는 점에 이의를 더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 글은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국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대학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훔볼트주의는 하나의 기본 전제로 작용한다. 즉, 대학의 정체성 문제는 훔볼트주의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과 문제의 진단은 "교수와 학생이 '연구-교육-학습'이라는 중심적 연계 활동에 동반자로서 함께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살펴

보고자 하며,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학의 현 실태와 문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로 외국의 대학개혁 사례를 예시적으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 대학의 경쟁력 수준

스위스에 소재한 국제경영연구원(IMD)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한 국가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국제경쟁력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곤 한다. 우리나라도 물론 꽤 오래 전부터 이 평가에 포함되어 왔다.

2001년도의 IMD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괄적인 국제경쟁력은 49개국 중에서 27위에 해당된다. 부문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과 인적자원의 경쟁력은 31위에 위치한다. 여기에서 다시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평가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41위로 매김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대단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41위로 총괄 경쟁력 27위보다 훨씬 낮고, 교육과 인적자원 경쟁력 31위보다도 무척 낮다. 즉, 대학은 국가의 다른 부문의 경쟁력을 선도하거나 제고하는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평가의 세부 부문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학인 것이다.

대학경쟁력이 제일 강한 나라는 단연 핀란드(1위)고, 다음이 캐나다(2위)와 아일랜드(3위)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낮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멕시코(38위), 이탈리아(39위), 아르헨티나(40위), 중국(42위)이다.

OECD에서도 매년 가입 국가에 대한 교육 부문

의 비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1995년도의 평가보고서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한국 대학의 과학, 기술, 연구 개발 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우려가 커 보인다.”

1996년도 보고서에서도 이런 지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 대학의 시설과 연구기능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의 대학은 다른 사회분야의 발전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일반의 기대와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낮은 평가는 개별 대학들이 갖는 국제경쟁력에서도 나타난다. 대학평가의 핵심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연구실적 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적 표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일본은 과학 부문에서만 2002년 현재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은 시급히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런 경쟁력 지표들이 과연 한국 대학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평가인가에 대한 이론이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전 세계의 대학이 유사한 역할 기대를 받고 있고, 이를 공통의 잣대로 측정할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IMD 평가의 경우, 주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나 국내 기업의 CEO들의 주관적 평가로 대학경쟁력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주관적 판단일 뿐'이라는 말로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대학에 대한 전문가적인 통찰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들은 대학을 내부자의 눈으로가 아니라, 외부자의 시각에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대학을 보는 최고의 전문가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

한국 대학의 낮은 평가는 개별 대학들이 갖는 국제경쟁력에서도 나타난다.
 대학평가의 핵심적 지표라 한 수 있는 연구실적 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세계적 표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도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

들 눈에 한국 대학은 낙제점, 즉 F 학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Ⅲ.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과 문제들

한국 대학의 현실과 문제는 당연히 연구, 교육, 그리고 학습의 측면에서 교육의 체제, 교수와 학생, 재정과 지원 시설 등의 면면을 골고루 다루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여러 측면 중에서 교육과 학생, 그리고 수요자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교육의 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는 교수들의 무경쟁 풍토이다. 이 중의 한 지표가 교수의 정년 보장이다. 능력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교수직이 철 밥통처럼 보장되는 제도 하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교수'가 대학에서 빛을 보기가 어렵다. 국제경쟁력이 높은 미국 대학의 경우 대부분 교수 정년 보장률이 50%를 밑돈다. 하버드 30%, 스텐포드 40%, 미시간 50%, 위스칸슨 65%, 버클리 75%인 반면 서울대의 경우는 거의 100%에 이른다.

교육의 질과 관련된 두 번째 지표로 심각한 것의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거의 50% 이상 시간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전임 교원은 4만 5천명 정도로 대학 강

의자의 56.7%에 불과하다. 시간강사가 3만 500여 명으로 38.4%를 이루며, 기타 겸임 및 초빙 교원이 4천명으로 약 4.9%를 이룬다. 신분상의 불안정과 연구에 몰두할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간강사에 의한 대학교육의 질이 높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홉볼트의 이념에 입각한 대학교육의 이상을 달성하는 데 이런 시간강사들을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이다. 시간강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하는 데 인색한 대학 운영자들의 비홉볼트주의적인 안목이 안타까운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만족해하는가? 이 점도 대학의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업 전념도는 매우 낮다. 2001년 1학기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이 전국적으로 53만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3명 중 1명 꼴로 휴학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 학생 수도 엄청나다. 2001년도 1학기에만 4만 1천명이 미등록이나 자퇴로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 인원 중 93%가 자퇴자로 밝혀지고 있다.

자기가 입학한 대학에서 다른 대학으로 옮기고자 하여 편입 준비하는 학생도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학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편입 시험에 1~2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많은 대학생들

이 입학과 더불어 국가고시에 매달린다. 대학의 공부는 그저 학점을 따서 졸업 요건을 갖추는 정도에 그친 채 사법, 행정 등의 고등고시와 회계사 등의 국가고시와 자격증 획득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대학교수와 대학생은 있되, 대학다운 연구-교육-학습의 연계 활동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공부는 지극히 미진하다. 하루 3시간 이상 공부하는 대학생이 7.6%에 불과하다. 30분 미만인 23.1%씩이나 되며, 30분~1시간이 28.0%, 1~2시간이 27.8%, 2~3시간이 13.5%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 특히 미국의 대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턱없이 적은 것이다.

대학생들의 대학 만족도는 어떨까? 대학생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4%에 불과했다. 즉, 대학교육에 "그런 대로 만족하는 편이다"라는 학생이 34%였고, 불만을 표현한 학생이 50% 이상이었다. 교수들의 교육(Teaching)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대학생은 11% 정도에 불과했으나, "불만이 많다"에 대해서는 89%로 훨씬 많았다(서울대 자료, 2001.12.17).

대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수 접근성 불만족(49.7%), 교수 강의 불만족(68.3%), 교수방법 불만족(79.2%), 과제물 평가 불만족(45.9%)으로 나타난다. 결국 대학생들이 대학에 매긴 평점은 'C 학점'이었다(중앙일보, 2001. 4.27).

대학교육의 수요자는 기업이다. 이들은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질 좋은 대학 졸업자를 찾으려 하며, 요구한다. 이들은 대학교육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높은가 낮은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높지 않다. 30% 이상이 대학교육이 "잘못하고 있다"라

고 지적한다. 기업의 요구와 대학에서의 학습내용 사이에 불일치도가 '크다'는 인사 담당자도 40.7%에 이른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 별 차이가 없다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72%에 이르고 있어서 대학에서의 전공 교육의 비효율성을 증언해 주고 있다. 또한 그들의 56.7%는 대학에서의 전공 교육은 회사의 단기간에 걸친 사내 교육으로 얼마든지 보강 가능했다고 밝힌다.

기업에서는 대학에서 길러진 인력이 기업 현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예컨대 공대 졸업자가 해당 관련 분야 기업으로 진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대 공대 졸업자의 62.1%만이 관련 산업체에 진출하지만, 도쿄대 공대는 89%, 미국 MIT는 87.4%가 산업체로 진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공과 직업 일치도는 대졸 수준에서도 매우 낮다. 대졸자 평균의 직업-전공 일치도는 35.8%에 그치고 있고 4년제 대졸 이상도 45.3%로 그다지 높지 않다. 직업-전공의 높은 불일치도는 대학교육의 허점을 잘 노출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Ⅳ. 대학개혁의 외국 사례들

이상에 지적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는 상당한 부분 세계의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런 문제 해결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 싱가포르 대학, 핀란드와 미국의 여러 대학이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다. 그 중의 몇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게이오 대학은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대학을 구상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SFC라는 새

“

핀란드의 대학개혁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른바 산업구성체(Industrial Clust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기업-대학-연구소를 지역 단위로 묶어서 긴밀하게 작동시키고자 하였다. 이 구성체를 중심으로 핀란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 지금 핀란드는 놀라운 발전지표를 내보이고 있다.

”

로운 캠퍼스를 조성했다. 이 곳에 그들은 어느 교수도 자기 전공의 학과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종합학과(종합정책학부/환경정보학부)를 설치해서 교수들의 고질적인 학과와 전공의 벽 쌓기를 해체시켜 버렸다. '내 전공'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우선시 되는 교수-학생 풍토를 조성한 것이다.

이들은 과감한 IT 학습체제를 도입해서 대학공부에서의 전통적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타파해 버림으로써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내용이든 마음껏 학습하게 하였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은 연구와 학습에 무제한적으로 몰두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 졸업에 필요한 4년간에 걸친 8학기 등록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통적인 교양과목 운영을 탈피해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 한국어, 독일어 등의 외국어 학습이 되도록 교양과목 운영 체제를 혁신하였다. 이런 개혁이 성공하여 SFC는 현재 일본 대학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혀 많은 주목과 함께 엄청난 지원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도 이런 대학 혁신에 앞장서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수-학생 간의 질 높은 튜터링(Tutoring)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교수-학생 비율을 1:7로 낮추었으며, 많은 돈을 들여 세계 석학을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서의 고등정신기능(창의성, 비판정신, 판단력, 문제해결

력 등)을 확산·심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내의 모든 시험에서 Open Book 체제를 의무화시키고 있다.

핀란드의 대학개혁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이른바 산업구성체(Industrial Cluster)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사회-기업-대학-연구소를 지역 단위로 묶어서 긴밀하게 작동시키고자 하였다. 핀란드 전역에 8개 산업구성체를 형성시켜 놓고, 이 구성체를 중심으로 핀란드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시도했고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로 지금 핀란드는 대학 경쟁력 세계 1위, 연구-개발 인력 비율 세계 1위, 기술개발 응용환경 세계 1위, 기술개발 펀딩(Funding) 세계 1위, R&D 투자비율 세계 1위라는 놀라운 발전지표를 내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학개혁은 어떤가? 세계 제일의 대학체제와 경쟁력을 보유한 대학을 50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대학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완전한 자율을 누리는 대학들은 자체적인 조정 기능을 발휘하여 학부모, 학생,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자체 개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대학개혁을 위해서 각 대학들은 엄청난 재정 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크게 성공하고 있다. 이런 풍부한 자금과 세계에서 몰려드는 인적자원(학생과 교수)을 활용하여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 온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을 그들은 구현

“

이제 대학개혁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정부 주도의 개혁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

개혁의 주체를 대학 당사자에게 맡기고, 정부와 관은 평가사업을 철저히 벌린 뒤

그 평가사업에 준해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매개로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는

학습체제의 형성이 곧 대학의 이상적 모습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하고자 하고 있다. 그들은 훔볼트의 이상이 지금 미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며, 결국 만개하게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매년 마다 이루어지는 대학의 등위 평가(예컨대 『U.S World Report』)는 바로 이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V. 결론: 대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의 여러 부문의 경쟁력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깎아 내리거나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대학은 제 몫만큼의 경쟁력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도 국제경쟁력 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지만, 대학교육은 그 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빠른 기간 내에 적어도 세계 25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대학이 인프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더 이상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그간 대학교육의 개혁에 무심했고 방관해 온 것은 아니며 꽤 일찍부터 대학개혁에 착

수한 바 있다. 이른바 실험대학이라는 이름 하의 대학개혁 프로젝트가 '70년대 초부터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1984년에 본격적인 교육개혁이 시작되면서도 대학개혁은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의 한 아젠다였다. 대학입학시험제도 개혁, 학부제 및 광역모집, 연구중심대, 국립대 개편, 지방대 육성, 특수전문대학원 설치, BK 21 사업 등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개혁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기는 아직 이른 듯하다. 소질과 적성에 무게를 실어 선발하던 대입제도 개혁안의 취지는 정책의 혼란으로 이미 실종되었고, 잘 진행되는 듯 보이던 학부제 및 광역 모집제는 위축되어 가고 있고, 연구중심대, 국립대 개편, 지방대 육성은 제목만 컸지 구체적인 개혁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BK 사업은 돈은 돈대로 투자되었지만 대학간에 나누어 먹기가 되어 버려 집중투자를 통한 국가 대학체제의 구조적 개편이라는 원대한 꿈은 이미 소실된 지 오래다.

이제 대학개혁은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정부 주도의 개혁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 개혁의 주체를 대학 당사자에게 맡기고, 정부와 관은 평가사

업을 철저히 벌린 뒤, 그 평가사업에 준해서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한정시켜야 한다. 정부의 육성 기준과 평가기준도 훔볼트의 대학 이념이어야 하고, 대학 당사자가 추구하는 발전이념도 훔볼트적인 이상이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매개로 파트너가 되어 활동하는 학습체제의 형성이 곧 대학의 이상적 모습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대학은 교수와 학생의 공동 활동이 가능한 체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수는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고, 연구실에서는 자기 연구에만 몰두하고, 학생들은 강의실에서만 교수를 만나는 현재의 전통적인 대학 풍토는 훔볼트의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교수와 학생이 동일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공동 활동을 하는 체제로 현행의 대학 운영체제는 개혁되어야 한다.

둘째로 정부는 대학에 연구비(교수-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의 형태로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연구를 매개로 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는 결국 국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비 개념은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2~3년제 전문대, 4년제 대학, 대학원 등)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대학은 지역사회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

과 긴밀한 연계를 이루면서, 학문에 대한 상아탑적 기능과 더불어 평범한 시민에 대한 지적 서비스도 활발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아탑적 기능을 내세워 지역사회와 분리되는 것은 결국 대학의 두 가지 큰 기능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며, 이 서비스의 포기는 대학의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넷째로 대학은 그 구성원간에 공정한 경쟁과 협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온갖 종류의 분쟁에 대학들이 시달려 왔던 바, 그 유일한 결과는 결국 '손해'라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이 상생(相生)하려는 공감대를 모범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대학은 그 자체로서 삶의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건전한 경쟁과 각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룩하는 공감대와 협동을 대학 밖의 사회에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 모범이 대학을 살리게 하는 시민들의 협조를 대학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한**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장, 서울대 교육학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도덕과 교육론』, 『한국 도덕 교육의 위상』, 『나는 어떤 부모인가』, 『신세대 부모여, 확신을 가져라』 외 다수가 있다.